

vol.146 2022년 5월

오늘의 해양쓰레기

| 바닷가 쓰레기 10개를 1개로 줄이는 오션 열일 캠페인 시작



CONTENTS

특집

바닷가 쓰레기 10개에서 1개로, 오션 열일캠페인 시작	3
--------------------------------------	---

최근활동

오션, KT&G, 해양환경공단 '해양 생태계 보호 MOU' 체결	9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최 미세플라스틱 토론회 진행	11
'오션스40' 강사 양성 과정, 첫 오프라인 강의 성황리 마쳐	13

세미나 중계

446회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진행 보고서	18
2022년 6월 오션 세미나 계획 공지	19

해양환경 뉴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2일 개막...“영화로 환경문제 알린다”	20
환경부, 탈플라스틱 협약 대비 토론회 개최	
바닷속 페그물은 넘치는데...수거 대신 '몰래 폐기'	
바다 망치는 물티슈...대안 있을까?	

공지사항

환영합니다!	21
4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22

바닷가 쓰레기 10개에서 1개로, 오션 열일캠페인 시작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14년간 항상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10개 종류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활동이다. 이름하여 ‘열일(10분의 1, 1/10)캠페인’. 10가지의 쓰레기의 현재 100m 당 평균 오염도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10분의 1이 될 때까지 적극 활동해 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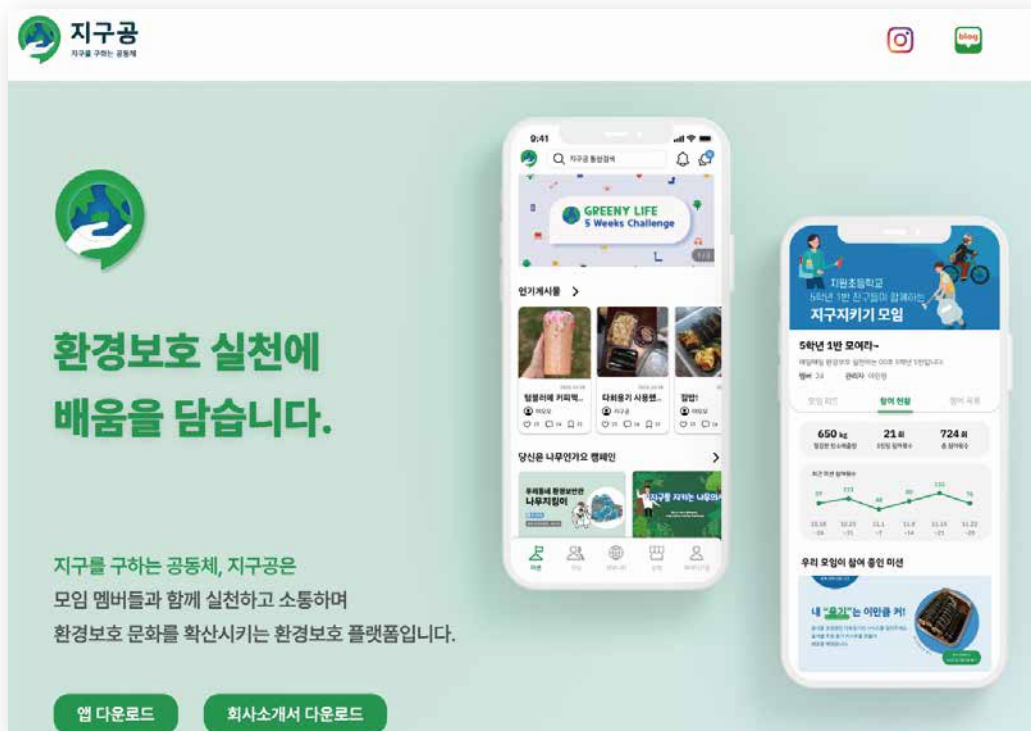
그 기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주관으로 오션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다. 지난 14년간 우리 바닷가에서 100종류의 쓰레기를 조사해 왔는데, 항상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항목들이 있었다. 바로 ‘스티로폼 부표, 밧줄,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뚜껑, 비닐봉지, 비닐식품포장, 노끈 등 6개 항목이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쓰레기 낚시줄/바늘/납추 등의 낚시쓰레기, 담배꽂초, 폭죽/불꽃놀이 용품, 그리고 장어통발을 추가하였다.

올해는 유엔환경계획의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자는 결의안을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념비적인 해이다. 향후 2년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완성될 것이다. 오션에서는 올해의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2년 안에 가장 흔한 쓰레기 10종을 10분의 1로 줄이자는 캠페인을 적극 벌여나간다. 우리의 방식으로 플라스틱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또 새 협약 체결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우리 바다가 지금보다 현저히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일반 국민이고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바닷가 10가지 쓰레기의 문제점과 양, 실천법을 알리는 피드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경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인 ‘얼씨’가 협력하여, 자체 개발 스마트폰 앱 ‘지구공(지구를 구하는 공동체)’을 이용해 미래의 주인공들이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캠페인 대상:** 전국민
- **기간:** 2022년 5월 말부터 12월말까지(1단계)
- **주요 내용:**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10가지 쓰레기
- **목표:** 2년 안에 10가지 쓰레기의 현재 오염도를 현재 10분의 1로 낮추고 그 근거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로 입증한다.
- **세부 내용:**
대한민국 바다의 날(5월 31일)과 유엔 환경의 날(6월 5일)을 계기로 시작, 연말까지 각 항목당 3~5회의 피드를 꾸준히 제작, 오션인스타그램(@osean_net)에 피드한다.
지구공약에 단기 실천 캠페인을 올려 일반 참가자들이 손쉽게 생활 속에서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도록 한다.

* 예산은 오션 회비와 기부금으로 모은 고유목적사업비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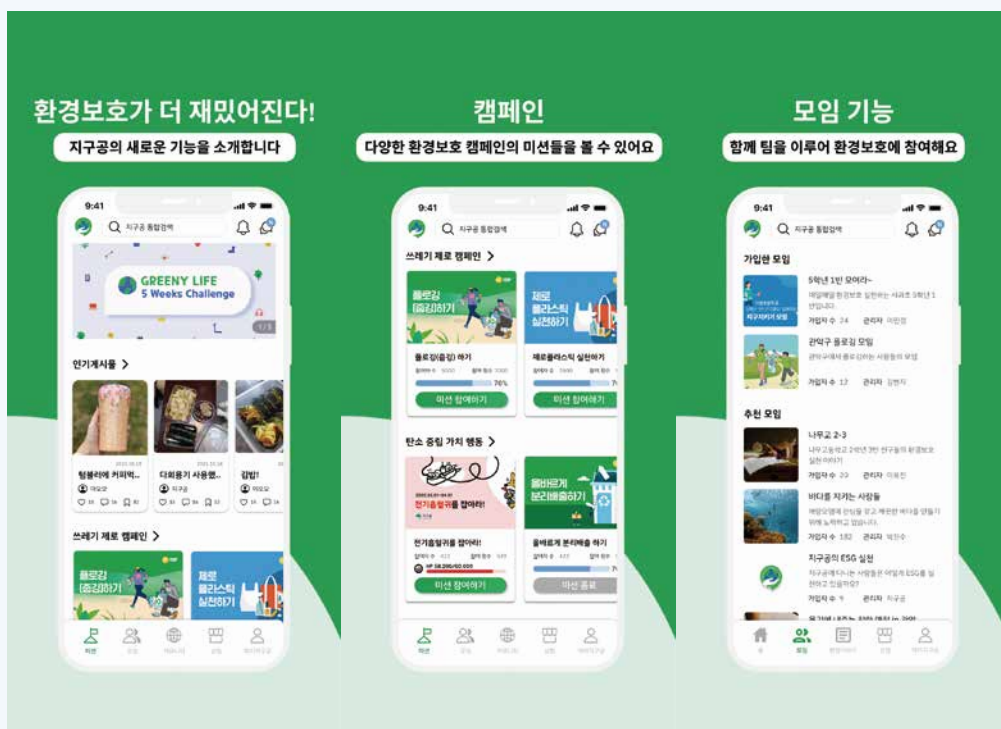


▲ 지구를 구하는 공동체, 지구공 홈페이지 jigugong.com

올해는 국제 연안정화 행사 한국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바뀌는 해이기도 하다. 홍선숙 대표-이종명 소장을 이어 오션의 국제협력팀 장윤정 연구원이 국내 4대 코디네이터로서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4대 국제연안정화 한국코디네이터 장윤정 ▶



▲ 지구공 앱 이미지(얼씨 제공)

1. 지구공 앱 다운로드 링크



▲ 지구공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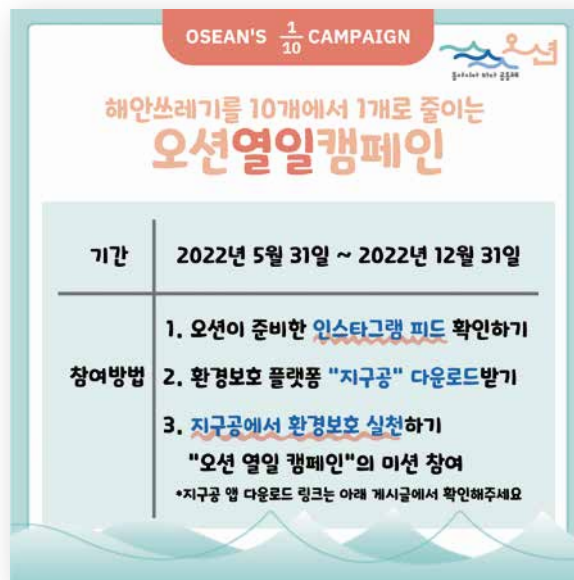
▲ 지구공 iOS 다운로드 링크

2. 지구공 내 오션 캠페인 운영기간:

2022.05.31 ~ 2022.10.31

3. 지구공 앱 관련 문의:

- a. 대표전화: 1668-3290
- b. 이메일: info@jigugong.com



▲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인스타그램 피드 1
https://www.instagram.com/p/Cd_7plzPHq/?igshid=YmMyMTA2M2Y=



▲ 열일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소캠페인: 플라스틱 몬스터를 잡아라!



특히, 플라스틱과 폐트병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하얗게 보였던 뱀다나 병뚜껑이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한 동물들은 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이동 중에 플라스틱이 몸에 걸려 살아가는
불쌍한 동물들도 많아요.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위를
떠다니다 쪼개져서, 거대한 미세플라스틱
밀집 지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떠다니다가
해안가를 모두 뒤덮어버리기도 해요!



플라스틱 몬스터를 잡는
원정에 동참해주실거죠?



미션 참여 방법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주세요!



텀블러 사용하기



포장이나 배달 시에
다회용기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친바구니
사용하기

실천하는 과정을 예쁜 사진으로 남겨,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지구공의 "미션"님은 친환경
텀블러를 활용하여 참여 보셨어요.



지구공의 "미션"님은
배달 시에 친환경
다회용기에 참여 보셨어요.



지구공의 "미션"님은
텀블러를 활용하여
참여를 보셨어요.

지구 공동체를 지키는 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의 미션 참여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지구공이 100지구포인트를 드립니다!

오션, KT&G, 해양환경공단 ‘해양 생태계 보호 MOU’ 체결

반려 해변 입양과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내 환경전시회 개최

박은진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ejpark@osean.net

KT&G(사장 백복인)는 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했다고 5월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T&G 서울 사옥에서 진행됐다.

KT&G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년도에 이어 △해변 정화 활동 △수중 정화 활동 △환경 전시회를 추진하되, 해양 오염 실태조사와 해양 정화를 비롯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T&G는 ‘반려해변’ 입양에 나선다. 반려해변 제도는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민간참여 캠페인으로,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KT&G는 올해 해안가 4곳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해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 경관 개선 등을 목표로 해변을 가꿔나갈 계획 이다.

KT&G와 오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5차례의 해변 및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해 약 7천 kg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지역활동가와 KT&G 임직원 등 300여 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업무협약 체결 후 오션 홍선옥 대표는 양 기관에 해양쓰레기 김정아 작가의 작품을 선물했다. (사진: 오션)



▲ KT&G의 해양환경보호 기금 2억원은 해변과 수중 정화 및 환경 전시회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진: 오션)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최 미세플라스틱 토론회 진행

“상점에서 해안까지.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영향” 주제로 연구 협력 방안 토론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 jmlee@osean.net

2022 ONLINE LECTURE SERIES

PANEL DISCUSSION

From the stores to the shores. The effects of microplastics on the environment

Moderator

Dr. Lee Jongmyoung
Country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Chief Release Officer, Our Sea of Blue Asia Network

Panelists

Prof. Tanja Velickovic
Professor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Prof. Jana Asselman
Assistant Professor (Food)
Blue Growth Research Lab

Prof. Rezania Shahabald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Energy
Soh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Date and Time

MONDAY, MAY 2, 2022
16:00-17:15 (KST)

VIA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6250724A21>
Meeting ID: 862 5072 4A21

“상점에서 해안까지.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영향(From the stores to the shores. The effects of microplastics on the environment)” 토론회가 2022년 5월 2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이종명 소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진행을 담당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는 특정 과학적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로는 야나 아셀만 교수(Jana Asselman / Assistant Professor, UGent Blue Growth Research Lab), 탄야 벨리코비치 교수(Tanja Velickovic /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레자니아 샤하발딘 교수(Rezania Shahabaldin, 세종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분포, 그리고 생태적 영향

첫번째 토론자인 야나 아셀만 교수(Jana Asselman)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발생원,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5 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정의한다. 산업적 목적 등으로 당초부터 5 밀리미터 이하 크기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1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세정제 등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드가 대표적인 것이다. 포장재나 플라스틱 제품이 5 밀리미터 이하 크기로 작게 부서져 만들어진 것을 2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일회용품과 포장재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및 대체 물질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두번째 토론자인 레자니아 샤하발딘 교수 (Rezania Shahabaldin)는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중 이동 경로와 분포, 그리고 생태적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육상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하수처리장에서 높은 비율로 걸러지지만 유입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양도 많다. 바다로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해안이나 해저에 쌓이거나 수중에 떠다니게 된다. 바다로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체내에 흡수되어 물리 적, 화학적 영향을 미친다.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게 섭식, 성장, 생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EU,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규명 위한 대규모 연구 진행 중

세번째 토론자인 탄야 벨리코비치 교수(Tanja Velickovic)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을 소개했다. 물론,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따라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보다는 논쟁 중인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음식은 물론이고 호흡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체내의 거의 모든 부분으로 이동하여 축적될 수 있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탄야 벨리코비치 교수(Tanja Velickovic)는 EU가 미세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 기금을 지원하는 ‘임톡스(IMPTOX)’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얼마나 섭취/흡입하고 그것이 천식이나 알러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명 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협약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이어, 전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당분간 가장 중요한 환경 분야 연구 주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전세계 여러 나라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주한 벨기에 대사관의 토론회가 그 협력을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OUR EXPOSURE TO MICROPLASTICS

IMP TOX

EXPOSURE
HAZARD
RISK ASSESSMENT

LACK OF STUDIES ON CHRONIC EXPOSURE
LACK OF DATA ON TOXICITY OF WEATHERED MICROPLASTICS

EXPOSURE	HAZARD	TOXICITY
• Cosmetics	• Plastics & Book manufacturing	• Food additives
Direct exposure to (potentially) pristine microplastics	Exposure to degradation products of microplastics weathered in the environment	
• Skin absorption	• Oral ingestion	• Inhal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 Dermal irritation

Embassy of Belgium...

‘오션스40’ 강사 양성 과정, 첫 오프라인 강의 성황리 마쳐

총 60시간 과정, 7월말까지 해양쓰레기 관련 다양한 주제 교육 예정

장윤정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oonie.jang@osean.net

‘오션스40’ 해양쓰레기 강사양성과정 첫 오프라인 강의가 5월 14일-15일, 이틀 간 통영 알시이(RCE)세자트라 숲에서 열렸다. ‘오션스40’ 강사양성 과정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 과정의 지원자들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한국해양교육협회, 국가해양환경강사단, 해양환경교육센터, 녹색전환연구소 등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소속으로 약 40명이 모집되었다.



▲ 오션스40 첫 대면 강의 오리엔테이션 모습(사진: 오션)

이 과정은 해양쓰레기의 개요, 시민과학, 해양환경 교육, 국제/국내 정책, 육상/해상기인 쓰레기, 해양쓰레기 조사기법 및 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박 2일간의 첫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5회의 온라인 강의, 마무리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총 60시간의 해양쓰레기 전문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해양쓰레기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를 듣는 참가자들 (사진: 오션)

첫 대면 워크숍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해양쓰레기 개요, 해양환경교육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체험, 클린스웰을 이용한 국제연안정화 참여와 같은 다양한 시민과학분야의 실습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참가자들은 강의 전문 자료, 디자인 등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오션에서 운영하는 어민/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국제연안정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학교나 교육청의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될 계획이다.



▲ 실제 모래 샘플을 이용해 '미세플라스틱 체험' 실습 중인 참가자들 (사진: 오션)



▲ ‘클린스웰’ 어플을 이용해 국제연안정화(International Coastal Cleanup)에 참가하고 쓰레기를 수거한 참가자들 (사진: 오션)

오션스40은 2019년에 진행된 오션스20 강사양성과정 이후에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기획된 후속사업이다. 오션스20의 후기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션스20’ 을 통해 배출된 해양쓰레기 전문 강사들의 소감과 각오

(<http://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6696>)

446회 오션세미나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성과 보고서

전세계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업 및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성과 매년 공유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 jmlee@osean.net

2022년 5월 11일 제446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유엔환경계획 글로벌 공약 2021 성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세미나에는 오션의 연구진과 해양쓰레기 전문강사들이 참여했다.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1. The Global Commitment 2021 Progress Report, ELLEN MACARTHUR FOUNDATION 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 Charity Registration No.: 1130306 OSCR Registration No.: SC043120 Company No.: 6897785

핵심 발견

1. 수십 년의 성장 후, 글로벌 공약 참여 브랜드와 소매업체에서 원료 플라스틱 사용량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진전은 주로 재활용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회용 포장을 없애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시급하다.
3.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지지하며,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토의한 내용

1.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정점을 찍었는가?

이 글로벌 공약 참여 업체들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다. 석유 사용량의 정점(Peak Oil)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십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 석유 존재량의 한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화 등으로 석유 사용량 정점이 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의 정점은 더 늦게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대안이 있지만, 플라스틱은 아직 대체 물질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로벌 공약 참여 업체들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019년까지 0.6% 감소에 이어 2020년에는 1.2%가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져서 2025년까지는 17%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공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을 줄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페트병에 국한된 재활용 증가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의 감소는 재활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재활용은 페트병이 주도했다.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높고, 기술도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각 나라에서 분리 배출과 수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페트병 재활용 증가는 산업계에서 초기 성과를 내기 쉬운 영역에 노력을 집중하여 얻어낸 결과, 즉 낮게 달린 사과를 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을 활용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늘리는 시도가 부진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 공약에 참여한 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 중 재사용 가능한 것이 2%도 되지 않고, 56%의 참여기업이 새로운 시범사업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과 산업계의 협력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엘런맥아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0%의 선도 업체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지지했다고 한다. 국가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이 오는 5월말 실무작업반 회의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OSEAN 세미나 참가 신청

안녕하세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5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5. 28
홍선욱 두 손 모아

참가 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 확인해주세요.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의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u@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9-5224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OSEAN 6월 세미나 일정

6월 7일 10:30 AM 제 448회 오션세미나

1. 대만 해안쓰레기 오염의 양과 유형: 훈련된 시민 과학자와 함께 시각적 평가 기법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신속 평가
2.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피 기반 해양쓰레기 평가가 야기하는 해상 기인 쓰레기의 심각한 과소평가

1. Ning Yen, Chieh-Shen Hu, Ching-Chun Chiu, Bruno A. Walther, 2022. Quantity and type of coastal debris pollution in Taiwan: A rapid assessment with trained citizen scientists using a visual estimation method,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822:153584

2. Falk Schneider, Hsin-Tien Lin, Chieh-Shen Hu, Chi-Hsuan Hsu, Ning Yen, 2022. Volume-based assessment of coastal litter reveals a significant underestimation of marine litter from ocean-based activities in East Asia, Regional Studies in Marine Science, 51:102214

6월 21일 10:30 AM 제 449회 오션세미나

칠레에서 비닐 쇼핑백의 흥망성쇠 -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금지를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비공식적인 연합

(María Amenabar Cristi, Camila Holzapfel, Medina Nehls, Diamela De Veer, Camila Gonzalez, Geraldine Holtmann, Daniela Honorato-Zimmer, Tim Kiessling, Ailin Leyton Munoz, Soledad Narvaez Reyes, Paloma Nunez, Jose Miguel Sepulveda, Nelson Vasquez, Martin Thiel, 2020. The rise and demise of plastic shopping bags in Chile - Broad and informal coalition supporting ban as a first step to reduce single-use plastics,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187:105079)

회의실 링크

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2일 개막... "영화로 환경문제 알린다"

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2

[출처] 뉴스펄컨 | 2022.05.18 | 최나영 기자

환경부, 탈플라스틱 협약 대비 토론회 개최

idsn.co.kr/news/view/1065590342865532

[출처] 매일안전신문 | 2022.05.19 | 이유림 기자

바닷속 페그물은 넘치는데...수거 대신 '몰래 폐기'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5&plink=ORI&cooper=NAVER

[출처] SBS NEWS | 2022.05.18 | 홍승연 기자

바다 망치는 물티슈...대안 있을까?

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97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2.05.17 | 곽은영 기자

환영합니다!

이번 달 새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가입인사를 공유합니다.

보다 뜻깊은 활동으로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은주, 손어진, 강재영, 배창수, 예수진, 정미현, 이재환, 심이나, 이정민, 정은영, 김영규, 허인숙 회원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은주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쓰레기의 전문단체 바다공동체오션에 회원가
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양환경교육 활동가로 건강
한 바다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은영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취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손어진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양쓰레기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참가자
로 참여하게 되면서 회원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니다!

허인숙 회원님의 가입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해양 대표 허인숙입니다. 저는 한국해
운조합, 경상남도 항만물류 투자유치 전문위원, 한국수산업
에서 일한 계기로 국제무역과 투자관련 비즈니스를 창업하
였습니다. 해양관리공단 출범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아시아 공동체 오션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
에서 민관협치 및 남북경제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를 2008년도에
졸업하고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정책사업에 민간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경제협력과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여 관광소셜벤처로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 데 해양정
화 활동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해양생태계보
호 NGO 활동가로 성장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분들과 네트
워킹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진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
는 가운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다살리기에 앞장서고 있
는 오션을 늘 응원합니다.

정미현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속초의 단체 쓰담속초 대표 정미현
입니다.

이재환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경험과 해양
전문가 활동에 많은 협력을 하고자 회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회원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션스 양성과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2022년 4월에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내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강대석, 강륜화, 강민구, 강성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구교승, 권담비, 권미양, 권정은, 고문현,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원, 김민정,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의태, 김정아, 김종덕, 김종운, 김종범, 김지혜, 김지환,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지, 김호상, 김호상,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도영준,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경숙, 문효방, 민병걸, 박경화,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미선, 박 솔, 박영규, 박연자, 박요섭, 박유민, 박윤경,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진아, 박철민, 박출이, 변효진, 서정은, 선호경,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소린, 심경숙, 심원준,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양수민, 오경희, 오은애,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은자경, 윤현정, 이강만, 이광재, 이동규, 이두형, 이문숙, 이보경, 이보경, 이석중,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리, 이원영, 이인숙, 이인식, 이정은,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주언, 이정민, 이정미,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진아, 임채원, 임효희, 임희근, 장 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규, 전평화, 전현수, 전홍선, 전홍표, 정경필, 정민경, 정수경, 정지현, 정지혜, 정준규,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성수, 조성석, 조현숙, 조홍연, 주재영, 진 주, 최나현, 최명애, 최승만, 최영석, 최윤숙, 최은정, 최주섭, 최지연, 최필종, 최희정, 채정연, 하경도,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정희, 황혜진

4월 후원해주신 기업

TS트릴리온, 드림오션네트워크, 리와인드, 샤인임팩트, (주)허니랩

• 회원가입과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

회원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Tel 055-649-5224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김여훈, 이세미, 박은진, 장윤정, 이유리, 강민구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전화번호 055-649-5224

홈페이지 www.osean.net

이메일 osean@osean.net

카페 cafe.naver.com/osean

인스타그램 @osean_net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저작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 146호 2022년 5월호, 홍선욱(편집)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